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구축

군산시, 올해 신규 사업 추진… 산업 경쟁력 강화

군산시가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올해 다양한 신규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시는 이번 신규 사업 추진이 관내 중소·중견 기업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관내 자동차 산업 제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212억원(국137, 도18, 시42, 민자15)을 오는 2026년까지 투입해 미래형 상용모빌리티와 자율주행차의 스마트 센서 성능평가를 위한 기업지원센터 구축, 기술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V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기업생산제품에 대한 실증을 통해 원가절감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

또 해양수산부 주관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시험평가 기술개발 사업 공모에 참여, 총 사업비 250억원 규모로 오는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새만금 방조제 내측 일원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 내용으로는 무인 해양기기(무인 수상정, 무인잠수정 등) 혹은 장치의 성능 측정 및 시험평가 기술개발, 해상 실증 시험장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사업 추진에 따라 수중 건설로봇을 포함한 국산 해양 무인시스템 개발 관련 기업들의 표준화된 실증플랫폼 구축으로 해양장비 기술개발, 국내 관련 산업 육성 및 세계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기업의 실증 비용이 대규모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슈퍼커패시터 융합 특수목적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2025년까지 3년간 총 89억을 투입해 상용차, 특장차, 건설기계 등 고출력을 요구하는 특수목적 모빌리티의 전동화에 필요한 슈퍼커패시터-이차전지·연료전지 융합팩 개발·검증을 위해 혁신지원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슈퍼커패시터(고용량축전지)는 이차전지 대비 고출력 구현 및 고속 충·방전이 가능하고 저온에서도 성능이 우수해 고출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에너지 저장장치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14일 제254회 임시회 회기 중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현황 청취와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섰다.

사업현황 청취·활성화 방안 모색

군산시의회, 중소유통물류센터·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현장방문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14일 제254회 임시회 회기 중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현황 청취와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섰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은 경암동 504-2번지 일원에 2019년부터 국·도비 보조금 등 총 110억원을 투자하여 공동구매를 통한 물류비 절감으로 소상공인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3~4월 중에 건축공사 준공 및 기자재 확보 등을 거쳐 오는 5월에 개장 및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건위원들은 현장에서 대형 유통회사의 대리점들과 최근 외부 자본에 기반한 대형 식자재마트들의 개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수퍼마켓, 마트 등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동구매를 통해 낮아진 구매가격에 연동하여 적정 유통마진을 반영한 소매점들의 판매가격 또한 낮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소매가격 상한제 미이행 등에 대한 패널티 등 대책강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해당 센터 조합원인 소매점들의 가격경쟁력 향상을 통한 소매점들의 매출 증대가 센터를 통한 공동구매 활성화와 센터 자체의 영업실적 호조로 연계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어야 센터의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센터 개장에 대비하여 군산시와 참여단체 간 상생협력 등에 더욱더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했다.

다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방문하여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조선소 관계자들에게 재가동이 힘겹게 성사된 만큼 군산조선소 활성화를 위해 시의회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군산=이재춘기자

익산시, 2024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돌입'

확보대상사업 보고회… 76개 신규사업 총사업비 1조9804억원 규모의 미래먹거리 사업 발굴

익산시가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대규모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정헌율 시장 주재로 2024년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9월 첫 보고회를 시작으로 발굴한 △민선8기 공약 △익산 미래도시비전 △혁신성장, R&D 등 미래성장동력 △새정부 120대 국정과제 대응 분야에 신규사업과 확보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보고회를 통해 76개 신규사업을 포함해 총 462개 사업을 확보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50대 중점사업을 추려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중앙부처 방문,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역 연고 정치인과의 소통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규사업으로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 구축, 연화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소·전기차 중대형 핵심부품 비파괴 3D 안전성 검사 플랫폼 구축,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 등 76개 사업(총사업비 1조 9,804억원)이 논의됐다.

대표적인 계속사업으로는 디지털 식품 클러스터 구축·운영, 홀로그램 기반 문화재 복원 및 가시화 서비스 사업화 실증사업,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설립, 제3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등 386개 사업(총사업비 4조 1,854억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김창현 항만물류 정책자문관 위촉

군산시가 15일 前 ㈜CJ대한통운 미국 상사 사장 김창현씨를 '군산시 항만물류 정책자문관'으로 위촉했다.

정책자문관은 앞으로 1년간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대응, 군산새만금신항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외활동 및 추진방향 자문 등 시 항만물류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 및 현안문제 등에 대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창현 정책자문관은 군산고등학교와 원광대학교를 졸업하고 '86년 대한통운에 입사해 20여년간 항만물류업계에 몸담으며 군산지사장과 광양지사장 및 미국상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항만물류 분야의 당면한 현안을 비롯해 새만금신항 행정구역 관할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항만물류 분야 각계각층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시각으로 자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 딸기, 싱가폴·몽골·태국 첫 수출길 열려

익산 딸기가 처음으로 해외 수출길에 올랐다.

시는 지난 1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싱가폴로 수출할 딸기 500kg 상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익산딸기는 싱가폴을 시작으로 이달부터 4월 말까지 태국, 몽골등으로 지속적으로 주 1회 수출된다. 수출 딸기 품종은 기존품종인 설향과 신품종인 킹스베리이다.

지역 딸기 재배면적은 188.7ha이며 238농가가 용안, 낭산, 금마, 여산, 삼기 등에서 재배하고 있다.

이번 수출 중심에는 지난 2010년에 82명으로 구성된 익산딸기연구모임이 있다. 지난해 8월 회원 중 7명이 별도로 딸기 수출작목반을 조직한 후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딸기를 엄격히 재배하고 규격선별을 추진해 이를 성공한 것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의회, 신규임용 정책지원관 전원 구성

익산시의회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익산시의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신규 정책지원관 7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임용식은 앞으로 익산시의회의 발전을 짊어지고 갈 7명의 신규 정책지원관을 임용함으로써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의 정책지원관을 포함 총 12명이 모두 구성되는 뜻깊은 행사로 신규 정책지원관들의 부모님과 가족을 초청하여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용식은 익산시의회 가족이 된 신규 정책지원관을 환영하고, 가족들에게도 축하와 존경의 뜻을 전하는 자리로 신규 정책지원관 선서, 임용장 교부, 가족의 꽃다발 수여 및 기념촬영 등으로 이루어 진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지방세 체납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군산시가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각종 채권에 대해 다각적으로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15일 코로나19 등으로 잠정 중단했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체납징수방법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기로 하고,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추심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전국 금융전산망을 통해 체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카드가맹점 실적을 조회 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신용카드사에 결제계좌 압류촉탁 의뢰해 체납액에 대한 지방세 채권을 확보하는 처분이다.

시는 압류 시행 전 지방세 체납 사업자 83명(총체납액 4억 4,900만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예고서를 발송했으며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기자